



www.obos.or.kr | **2011 Spring Vol.09**

여는 글	02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은 희망입니다	
Special Story	04
'행복·희망의 씨앗'을 심는 2011년	
희망의 씨앗	06
'희망의 씨앗', 제가 심겠습니다	
행복의 씨앗	08
'생애 첫 기부'로 자녀에게 나눔 교육을	
일본 대지진 긴급구호	10
일본의 슬픔을 나눕니다	
인권아카데미 버려 교육 참가기	11
인권과 개발, 그리고 기업의 만남	
월드 On Air	12
아이티 1년, 아픔·연대·희망의 순간들	
현장속으로	14
띠앗누리, 캄보디아에서 사랑을 얻다	
공감, 나누는 세상	16
연말연시 한파도 녹인 나눔의 열기	
고마워요, 사랑해요	18
환아들에게 미소를 선물한 산타	
OBOS NEWS	20



표지이야기

김수환 추기경 선종 2주기인 지난 2월16일, 명동성당 앞에서 열린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생명나눔운동인 '희망의 씨앗 심기' 선포식에 참석한 봉사자가 김수환 추기경을 담은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랑의 웃음이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마음한몸 발행일 2011년 3월 15일 통권 제 9호

발행인 김용태 발행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서울시 중구 명동길 62 (구 명동2가 1) 가톨릭회관 413호

편집디자인 굿모닝컴 글·사진 홍보팀

출력·인쇄 프라아트 주소변경 및 문의 후원관리팀

| 02.774.3488 | obos@catholic.or.kr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발행하는 계간지 "한마음한몸"은 후원자들에게 무료로 배포됩니다. 한마음한몸의 내용은 인터넷 (<http://www.obos.or.kr>)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소식지의 저작권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있습니다.

Copyright©ONE BODY ONE SPIRIT, all rights reserved



‘행복·희망의 씨앗’을 심는 2011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고, 살기 힘들어 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꿈꿀 수 있냐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나눔을 실천하며 다른 이들에게 ‘행복·희망의 씨앗’이 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행복의 씨앗

환경, 기아, 전쟁, 질병 등 눈앞에 닥친 지구의 많은 문제들. 어떤 이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실천하기 앞서 의심하고 그 효과에 대해 망설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의 작은 실천은 행복의 씨앗이 되어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랑을 통해 지구촌 곳곳의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이 미래를 열어갈 꿈과 행복의 삶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희망의 씨앗

질병의 아픔과 고통, 빈곤 속에서 절망에 빠진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 ‘희망의 씨앗’을 함께 심어봅시다. 그 ‘희망의 씨앗’은 우리의 이웃들과 내 마음에서 함께 자라나 큰 나무로 세상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희망의 씨앗’은 민간단체와 정부가 함께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취지에서 장기기증, 인체조직기증, 조혈모세포기증, 헌혈 등 생명나눔을 상징하는 브랜드입니다.

행복·희망의 씨앗, 제가 심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의씨앗



하루 100원 모으기
소중한 100원, 큰 나눔의
씨앗입니다(정기후원신청)
02.774.3488

아프리카·아시아
빈곤퇴치
1005-684-07777(우리)
(재)천주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생애 첫 기부·
기념일 기부
돌·백일, 특별한 날에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세요.
02.727.2267

사랑의 저금통
개인용 환경저금통·
매장용 저금통을 보내드립니다.
02.727.2267

긴급재난 구호
우리의 나눔이 치유의 가적을 만듭니다.
1005-785-119119(우리)
(재)천주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유산나누기·천사보험
우리가 남긴 유산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쓰입니다.
02.727.2294

ARS 후원·
신한카드 포인트 기부
060-700-1117(ARS후원)
www.arumin.co.kr(신한카드)

재능기부
국제청년자원활동
봉사활동
02.727.2287

배너나눔·해피빈
인터넷으로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운동을 알려주세요.
happylog.naver.com/obos
www.obos.or.kr

희망의씨앗



장기기증희망신청
한마음한몸장기기증센터
1599-생명살이(3042)

백혈병·난치병어린이 돕기
454-005324-13-044(우리)
(재)천주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헌혈·헌혈증 기부
꺼져가는 한 생명을 살립니다.
02.727.2268

장기이식대기자 돕기
이식비용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생명의 불씨를 살립니다.
327-05-023289(신한)
(재)천주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신청
백혈병(혈액암)환자들의
희망이 됩니다.
02.727.2268

자살위기사담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www.3079.or.kr
1599-생명친구(3079)



▲ 희망의 씨앗심기 캠페인에 많은 시민들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희망의 씨앗’, 제가 심겠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선종 2주기 추모 및 장기기증 거리캠페인 펼쳐

故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2주기인 지난 2월16일,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본부 설립자이며 초대 이사장을 지낸故 김수환 추기경의 추모식과 김추기경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잇는 ‘2011 희망의 씨앗심기 선포식’을 열고 대대적인 장기기증 거리캠페인을 펼쳤습니다.

●●●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나눔과 사랑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신 고 김수환 추기경님을 기억하며...’로 시작된 김추기경 선종 2주기 추모식에서는 모처럼의 따뜻한 날씨 속에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고인에 대한 그리움을 추모의 글에 담아 낭독하고 고인을 향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2011 희망의 씨앗심기 선포식’에서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사무국장 민경일 신부는 취지말씀을 통해 “김 추기경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남기고 가신 ‘희망’의 메시지를 되새기며 우리도 절망 속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희망의 씨앗’을 심고자 이 자리에 모였음”을 상기 시키고는 “추기경님 말씀처럼 내일의 희망을 위해 오늘 그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우리

‘희망의 씨앗’ 배지를 가슴에 달아주며 장기기증 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장기기증희망신청서를 작성한 이들에게는 실제 겨자씨가 들어 있는 ‘희망의 씨앗’ 휴대전화 고리 등 기념품을 선물했습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본부를 통해 장기기증희망을 신청하신 분은 3만6천여 명으로, 예년에 비해 10배 가량 늘었으며, 국내 전체 희망자수 역시 2008년에 비해 2배 가량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김 추기경 선종 후 장기기증자가 몰림듯이 밀려든 2009년 말에 집계된 3만4천여 명에 비해서도 증가한 수치로써, 본부를 제외한 타 장기기증 희망자 모집단체의 기증자가 지난 한 해 최대 50% 이상 하락한 것과 비교해 볼 때,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중심으로



▲ ‘희망의 씨앗심기’ 거리캠페인에 참가한 봉사자들



▲ 선포식후, 빨간 풍선을 흔드는 모습



▲ 거리캠페인에 참가, 환한 웃음을 짓는 봉사자들

사회에 ‘희망’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이웃들을 위해 ‘희망의 씨앗’을 함께 심어 큰 희망의 나무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자”고 강조 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임직원을 비롯한 100여 명의 봉사자들은 저마다 손에 ‘I DO 희망의 씨앗’ 문구가 새겨진 빨간색 풍선을 들고 집퍼 위에는 희망의 씨앗 로고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희망의 씨앗 심기!”라는 사회자의 선창에 맞춰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복창과 함께 하늘 높이 풍선을 흔들며 생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외쳤습니다.

참가자들은 이후 명동거리로 나가 만나는 시민들마다

로 한 가톨릭장기기증전국네트워크의 생명 나눔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었습니다.

본부는 시순 시기를 시작으로 가톨릭장기기증전국네트워크와 함께 전국 교구에서 동시에 ‘희망의 씨앗 심기’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장기기증과 조혈모세포기증, 헌혈 운동 등을 통한 생명나눔문화, 즉 희망의 문화를 전파하며 사랑 실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

‘희망의 씨앗 심기’ 전국 교구 동시 캠페인

시기 : 시순시기~연중

내용 : 시순시기부터 전국 각 본당에 ‘희망의 씨앗 심기 참여신청서(장기기증신청서)’를 배포하오니 신자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1599-생명살이(3042)



▲ 언니 인혜에 이어 첫 생일을 맞아 '생애 첫 기부'를 한 황인지 아기와 가족

‘생애 첫 기부’로 자녀에게 나눔 교육을

“나눌 수 있어 오히려 저희가 감사합니다. 인혜와 인지야!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마워.” 2/23(수), 이 날 첫 생일을 맞은 인지의 ‘생애 첫 기부’ 전달식을 위해 가족이 함께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첫 아이 인혜에 이어 둘째 아이 인지까지 모두 ‘생애 첫 기부’를 한 황종익(이시돌, 월계동본당) 씨는 “남들이 다 하는 돌잔치보다 기부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의미있는 생일을 맞게 해주고 싶었다”며 함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지난 2007년 첫 선을 보인 '생애 첫 기부'가 높은 호응을 보이며 새로운 나눔 문화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2007년 1가족으로 시작해 2008년 14가족으로 늘고, 2009년 33가족, 2010년 55가족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2월 28일까지 두 달만에 벌써 36가족이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생애 첫 기부'는 사랑스러운 내 아이에게 화려했고 소비적인 돌잔치를 열어주는 대신 그 비용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거나 돌잔치 때 받은 축의금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의 생일이나 입학 등 기념일에 값비싼 선물 대신 아이 이름이 적힌 후원금 증서를 안겨주면서 자연스럽게 '나눔 교육'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같은 증가 추세는 ▲ 고 김수환 추기경의 숭선수범을 통해 사회전반에 확산된 나눔 문화 ▲ 참여했던 가족들이 개인 블로그나 육아정보 누리방, 카페에 생애 첫 기부 사진과 함께 소감을 올리면서 아기들의 '첫 선행'을 소개하고 추천한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에게 의미있는 돌잔치를 열어주고 싶은 부모들의 사랑이 '생애 첫 기부'라는 나눔문화를 전파하는 가장 큰 힘이라 생각됩니다. 생애 첫 기부는 첫돌을 맞는 기쁨 외에도 ▲ 건강하게 자란 자녀에 대한 감사 ▲ 소외된 이들을 위한 기부 ▲ 교육 효과 등이 있어 1석 2조,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창업자 빌 게이츠에게



▲ 지구촌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아름다운 기부를 해주신 김윤아(바빌다) 가족



▲ 첫 생일을 맞아 '생애 첫 기부'를 한 자원이네 가족

있어 오늘의 그가 있게 한 원동력은 아버지 시니어 게이츠였고, 현재 자선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에서 왕성한 자선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도 어머니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어머니 페리 여사는 일요일 저녁에는 꼭 온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만찬을 나누며 자녀들에게 자선활동을 강조했고, 아버지도 아들에게 항상 '나누고 봉사하는 삶' '사회적 책임과 의무' 등을 가르치고 또 강조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빌 게이츠도 자신의 세 자녀에게 저녁식사 자리에서 다운타운에 나가 식사 봉사를 할 수 있는데 대해 감사기도를 드리게 하고, 가끔은 가난한 아프리카 등지에 대한 여행을 통해 세상 실정을 깨닫게 도와주면서 '어린 나이에 세상의 실패를 알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처럼 핵가족, 한자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칫 자신만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나눔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기부하는 습관을 길러주면 평생 주변 이웃을 돌아보며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 나눔이 많아진다면 우리 아기 기부자들이 살아갈 미래는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 '아기가 생기면 생애첫기부에 꼭 참여



▲ 아빠의 무릎에 앉아자신의 이름이 적힌 '생애첫기부' 기념편을 보고 있는 황호신 어린이

생애첫기부 계좌안내

- 후원 우리은행 454-005324-13-044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문의 02-727-2267

일본의 슬픔을 나눕니다

일본 '대지진-쓰나미-원전 폭발' 대재앙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일본에 5만달러 先지원

... 2011년3월11일 오후 2시46분, 일본 혼슈 센다이 동쪽 179Km 해역(북위 38.3도, 동경 142.4도, 동경 북동쪽 373Km 지점) 지하 24Km 지점에서 리히터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4번째로 기록된 최악의 지진과 최대 높이 10m의 초대형 쓰나미로 인해 주택과 건물, 기간시설 및 농경지가 심각하게 파손된 것은 물론 원전이 폭발하고 도시 곳곳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지진 피해로 이재민과 사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지난 3월15일, 긴급구호자금 5만 달러를 일본카리타스를 통해 지진 피해지역에 전달했습니다. 향후 국제카리타스 및 일본카리타스와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긴급구호 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일본 지진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충격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드리며, 더 많은 나눔의 손길이 전해질 수 있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

일본 국민들에게 보내는

정진석 추기경님의 위로메시지 全文

일본에 발생한 강력한 지진으로 일본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희생자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현장에 갇혀있는 생존자들의 구조작업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라며 또한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자비로 고통 중에 있는 일본 국민들이 하루빨리 충격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1년 3월 12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일본 대지진 긴급구호 계좌

- 후원 우리은행 1005-785-119119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문의 02-774-3488



1. 일본 동북부에 규모 9.0 강진 발생사흘째인 13일, 이와테현 오쓰치의 한 건물 옥상에 쓰나미에 휩쓸렸던 여객선 한척이 얹혀있다. 2011.3.14(출처, 오쓰치(일본)=AP/뉴시스)
2. 14일 오전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3호기 건물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연기가 치솟고 있다. 2011. 3.14(출처, 로이터)
3. 일본 동북부에 규모 9.0 강진 발생사흘째인 13일 미야기현 나토리의 폐허 속에서 한 주민이 흐느끼고 있다. 2011. 3.14(출처, 나토리(일본)=AP/뉴시스)

인권과 개발, 그리고 기업의 만남



▲ 교육에 참가한 본부 민경일 사무국장 신부(맨 앞줄 오른쪽 끝에서 다섯번째)와 박진술 간사(맨 앞줄 오른쪽 끝에서 여섯번째)

글 ● 국제협력부 박진술

●●● 한미음함몸운동본부는 설립 이래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전 지구적 빈곤퇴치와 사회정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10여 개국의 국제개발 및 인도적 구호사업을 지원하며 장단기의 국제자원활동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는 관련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에 '인권에 기반한 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 이하 RBA)'의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 중의 하나가 바로 '인권'입니다.

한국인권재단 등이 주최한 '인권아카데미 베틀리 - 인권에 기반한 개발과 기업의 역할'은 인권에 기반한 빈곤 퇴치와 국제개발협력 및 기업의 인권적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확산을 목적으로 지난 2월 17일 ~ 19일까지 경희대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개발협력NGO의 실무자로서 이번 인권아카데미 베틀리교육 참가는 인권과 국제개발 및 원조 그리고 기업의 인권적 책임에 관한 기본 개념과 역사적 배경 및 맥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조별토론을 바탕으로 상황극을 연출한 프로그램은 인권침해 상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이해하고 대안을 탐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고민들을 발판 삼아 모든 사람의 모든 인권을 존중하고, 지구촌의 빈곤퇴치와 사회정의를 증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며 우리 모두가 인권, 평화, 연대에 근거한 가치와 태도를 갖추는 지구시민으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



▲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역할극 연출



곳곳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들이 지펴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를 재건축하며 지붕 공사중인 모습

아이티 1년, 아픔·연대·희망의 순간들

국제 카리타스의 활동을 중심으로...

글 ● 국제협력부 차장 김대민

... 2010년 1월 12일 진도 7.0의 지진이 중남미의 가난한 나라 아이티(Haiti)를 강타했습니다. 수도 포르토프랭스(Port-au-Prince)에서 인구밀도가 비교적 높았던 빈민지역은 순식간에 가장 큰 재앙의 한 곳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2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3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희망의 징후들이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도전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새로운 주거, 일자리, 안정된 삶에 대한 희망은 허리케인과 홍수, 콜레

라의 창궐로 다시금 무너졌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국제 카리타스는 아이티 사람들과 함께 매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티의 재건을 위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국제 카리타스는 직원들을 파견하고 즉각적인 긴급 구호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이티 카리타스, 미국 카리타스, 스위스 카리타스는 지진 발생 이전부터 아이티에서 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회원기구들은 현장에 들어가 즉각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 할 수 있었습니다.

지진 후 3개월 동안 국제 카리타스의 활동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과 물, 위생 및 의료, 주거에 초점을 두었으며, 국제 카리타스의 긴급구호 노력은 150만 명 이상의 생존자들 생명 보호를 위하여 실시되었습니다. 60개국이 넘는 국제 카리타스 회원 기구들이 의식주 및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장소, 의료서비스와 정신적 충격에 따른 심리 상담을 제공하면서 재난이 발생한 첫날부터 활동해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1,400만 달러(약 156억2천4백만 원) 이상의 비용이 긴급구호와 초기 재할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쓰였으며, 수도인 포르토프랭스를 벗어나 지방으로 이주하는 60만 명의 이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각 국의 카리타스는 긴급 식량 원조를 확대하였습니다. 2010년 4월까지 국제 카리타스는 주거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비롯해 레오간과 자크멜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10만 명의 주민들에게 텐트와 방수포를 지급했습니다. 또한 국제 카리타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재건복구(cash-for-work)' 사업을 통해 2,000명의 아이티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었고, 보건의료 사업을 통해 5만 명의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국제 카리타스는 농민들을 위해 두 번의 '중자 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캠프에 있는 2천 명 이상의 아동들에게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25개의 임시 학교를 세우고 53개의 학교가 수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건축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 1년 가까이 국제 카리타스의 긴급구호와 복구 및 재할 사업은 전 지역에 걸쳐 확고히 자리를 잡아 가고 있으며, 국제 카리타스는 2010년 5월에 시작해 2011년 5월까지 약 2억1천7백만 달러(약 2422억 원)가



▲ 건물을 짓기 위해 터파기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장면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 카리타스는 이러한 지원금을 바탕으로 허리케인 및 홍수, 콜레라 등으로 생긴 추가적 재난 상황에 필요한 위생용품 및 식량 배급뿐만 아니라 주거 및 생계, 교육, 인프라, 역량강화, 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아이티 재건의 성공은 바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는 지금까지 초기 긴급구호 사업에 약 50만불(약 5억5천8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그 후 학교 재건사업에 33만불(약 3억6천8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금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지난해 5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현지지를 직접 방문하여 현지의 피해상황 조사와 장기 재건 사업을 위한 방안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제 카리타스와 협력하여 학교 재건 사업과 더불어 아이티의 보건, 의료, 건강 등의 사업 검토를 거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본부의 이 같은 많은 지원과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도전과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티 정부와 국민들, 그리고 많은 원조단체들이 노력하고 있는 한 재건 속도는 더디지만, 아이티는 조금씩 조금씩 지진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에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비록 우리와는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의 삶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들의 고통과 눈물에 무관심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르코 12:31)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며,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

아이티 지진참사 돕기 계좌 안내

- 후원 우리은행 454-005324-13-045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문의 자원개발부 02-727-2267

띠앗누리, 캄보디아에서 사랑을 얻다

...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국제청년자원활동단 「띠앗누리」 11기가 지난 1월 4일부터 18일까지 14박 15일의 일정으로 캄보디아에서 열린 국제자원활동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띠앗누리」 11기는 이번 활동에서 캄보디아 캄땡툼지역 캄땡꼬마을과 반티 프리업 장애인기술학교에서 마을개발사업을 지원하고 현지 청년 및 아동,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문화교류활동을 통해 양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며, 연대를 통해 지구촌의 시민으로서 공동체적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활동을 준비하며 “지구시민으로서의 청년”을 주제로 전체 오리엔테이션과 국제개발협력 이슈 중 환경, 인권, 빈곤과 관련한 3차례의 배움터를 진행한 「띠앗누리」 11기는 국제자원활동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띠앗누리」 11기는 국내로 돌아온 후에도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동안 지리산 인드라망 마을공동체를 견학하고 둘레길을 탐방하면서 마을공동체 내에서 청년의 역할을 확인하고 지구촌이라는 한 마을에서 청년들이 지구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리산 국내체험 마지막 날 열린 해단식에서는 「띠앗누리」 11기의 활동 내용을 담은 영상물 상영 및 자원활동확인서 수여와 기념 촬영이 있었습니다.

자원활동기간 동안 겪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마음의 보물인 ‘사랑’을 얻고 왔다는 단원들의 나눔의 모습이 아름다운 해단식이었습니다.

이 경험과 나눔이 「띠앗누리」 11기의 삶을 변화시켜 세계로, 지구로 향해 나갈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캄보디아에서 얻은 가슴 속의 사랑을 이제 세상에 나이가 각기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 사랑을 전파해 보길 바랍니다. 건강히 다녀온 「띠앗누리」 11기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1. 「띠앗누리」 11기가 캄땡꼬유치원 앞 흙길을 정돈한후 벽돌을 깔고 있습니다
2. 캄땡꼬유치원에 학용품, 교복 등 선물을 전달한 「띠앗누리」 11기
3. 유치원 아이들과 문화교류활동으로 태극선부채를 만들고 기념촬영 한 것



「띠앗누리」는

친교를 나누며 세상이 한 가족, 한 형제가 되자는 의미의 순 우리말입니다.

‘지구’라는 넓은 들판을 향한 첫 걸음

글 ● 떠있누리 11기 채윤경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살갓빛으로 노을 지던 강가, 매일 저녁 때 제기도가 끝나면 삼삼오오 모여들어 소곤거리던 ‘별 헤는 밤’, 성당 뒤편을 빨갛게 물들이며 새벽을 열던 햇살. 그리고 감뽕고 아이들의 까만 발바닥과 하얀 미소. 그 곳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낍니다.



차가운 바닥의 침낭과 모기장, 씻고 빨래하는데 썼던-그 곳 사람들에게는 먹은 물로 사용된다는-누런 빗물, 식사 중 가끔 입을 다물게 하는 향신료 냄새에 두려운 적도 있었지만, 이곳에 사는 아이들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임을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졌고, 그렇게 어느새 적응해버린 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이 낯설기도 하련만, 먼저 다가와 손을 잡고 웃어주며, 카메라만 보면 얼굴을 다 가리는 줄도 모르고 손가락으로 V를 그려 보이던 아이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노크하던 아이들의 미소를 통해서, 우리는 자선을 베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배우러 가는 것이라던 한마음한몸운동본부장 김용태신부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움을 느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 준 것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캄보디아에서 보낸 시간들이 우리를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 지구라는 넓은 들판으로 이끌어내는 첫 걸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움은 사랑이 남긴 발자국입니다. 가슴속에 선명하게 찍힌 그 자취를 따라 그 때 그 곳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기억을 발판 삼아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며 누군가의 가슴에 그렇게 사랑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몫이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연말연시 한파도 녹인 나눔의 열기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세요’ 거리캠페인에
2,000여명의 시민 참여



본부 홍보대사 양미경 씨가 모형 학교벽에 벽돌모양 응원메시지를 붙이기에 앞서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2010년12월1일~2011년1월31일까지 두 달간 빈곤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청소년에게 보다 나은 내일을 열어주기 위한 '사랑의 마법사 되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 주세요'라는 주제로 펼친 이 캠페인은 동화 속 키다리 아저씨의 보이지 않는 보살핌 속에 어린 소녀가 꿈과 용기를 잃지 않고 힘든 일을 꿋꿋이 이겨냈듯이, 연말연시에 우리가 행한 작은 사랑의 나눔으로 아이티, 캄보디아, 몽골, 부룬디 등 가난한 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줄 수 있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 주세요'는 이들이 힘과 용기를 갖도록 학교를 지어주고 학용품과 교복,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나눔운동입니다.

본부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12월22일~24일 명동 우리은행 앞 상설무대 및 명동성당 입구 장기기증센터 앞에 무대와 모금함을 설치하고, 거리캠페인을 펼치며 시민들이 낸 성금이 학용품과 책으로 변하는 미술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쳤습니다.

또 본부 홍보대사인 탤런트 양미경(엘리사벳)씨도 캠페인에 참여해 학교 건물 형태의 벽체에 벽돌을 붙이는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고, 지구촌 이웃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홍보전단을 나눠주는 등 지구촌 빈곤 퇴치를 위한 캠페인을 적극 홍보하였고, 3일간 진행된 서울 명동거리 캠페인에 2,000여 명의 시민이 직접 모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 명동거리 캠페인중 플래시몹을 통해 길을 지나가는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세요' 캠페인에 길을 지나가는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편, 명동거리 캠페인에는 보이지 않게 뒤에서 많은 분들과 기업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장소 대여에서부터 플래시몹, 미술, 통기타 가수 공연 등의 이벤트, 디자인, 학교모형 보드판 제작, 무대 연출, 사탕, 쿠키에 이르기까지 모금 못지 않게 많은 물품후원과 다양한 재능기부로 행사를 더욱 의미 있고 풍성하게 해 주었습니다.

지구촌 청소년들의 빈곤퇴치를 위해 연말연시에 두 달간 진행된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세요' 캠페인에는 아이들의 고사리 손으로 용돈을 모아 보낸 성금, 돌아가신 어머니의 조의금 기부, 부서회식비에 추가로 덧붙여 기부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아름다운 미담과 더불어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모인 성금은 총 6,830여 만원에 이르며, 모아진 성금은 지구촌 빈곤 청소년을 위한 학교를 건설했고 학용품과 교복, 장학금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올해에도 캄보디아, 미얀마, 파키스탄, 케냐, 몽골, 부룬디 등 6개국 빈곤층을 대상으로 총 15개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연말연시의 한파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빈곤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수많은 시민과 학생, 그리고 재능 기부자 및 후원기업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며,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 주신 모든 키다리아저씨께 감사드립니다. ⊕

아프리카·아시아 빈곤퇴치 참여 방법

● 우리은행 1005-684-077777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환아들에게 미소를 선물한 산타

본부, 소아암 환아 위한 ‘산타가 되어 주세요’ 행사



▲ 백혈병·난치병 환아 및 부모들이 산타와 함께 게임을 하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성탄절을 며칠 앞둔 지난 12월 21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일산국립암센터 소아병동을 찾아 백혈병·소아암으로 입원하고 있는 환아들을 위로하고 쾌유를 기원하는 ‘산타가 되어 주세요’ 행사를 마련하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 장기간 입원해 있으며 병마와 싸우느라 지쳐있던 어린 환자들은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의 류지영 수사 진행에 맞춰 레크리에이션을 하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빨간 산타 모자를 쓴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사무국장 민경일 신부는 환아들에게 담요와 탁상달력, 유기농 컵케이크 등 예쁘게 포장한 선물을 나눠주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환아를 위한 치료비도 전달했습니다.

이날 소아병동은 여느 때와 달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

며, 독한 항암제 때문에 머리카락이 한 올도 남지 않고 빠지고, 빈혈로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던 아이들은 평소 주사 맞기 싫어 눈이 통통 붓도록 울곤 했지만 이날만큼은 신나는 공연도 보고 산타할아버지의 푸짐한 선물도 받으며 신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 신타와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 파티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성탄절을 맞아 12월15일~24일까지 전국 19개 병원 소아병동의 백혈병·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환자 1300여 명과 본부의 치료비 지원을 받은 환자 80명에게 총 40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 신타복장을 하고 선물을 전하는 본부 사무국장 민경일 신부

본부는 또 2010년 한 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백혈병·난치병 환자 24명에게 총 2억2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

사랑의 기쁨, 생명의 기적 후원자 여러분의 나눔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생애 첫 기부를 통해, 사랑의 저금통을 통해, 후원을 통해 '2010 산타가 되어주세요' 캠페인과 백혈병·난치병 어린이 지원사업에 성금과 사랑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산타가 되어 주세요" 행사에 감사 드립니다.

국립암센터에서 진행된 "산타가 되어 주세요" 행사에 참여했던 환자의 엄마입니다.
덕분에 병동의 환아들과 외래에 진료 온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 많이 기뻐했습니다.
늦었지만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고 무엇보다 행사를 위해 기부를 해 주신 후원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부모조차 알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한 힘든 항암치료중인 아이들의 웃음은 세상 그 무엇보다 좋은 명약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 본부 홈페이지 '환아맘' 아이드로 올려진 글 전문(자유게시판 1540번 게시 글, 2010년12월30일)

국립암센터 환아들에게 희망산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신부님, 수녀님, 여러 임직원분들.
우리 국립암센터 환아들에게 매년 이렇게 선물을 챙겨 주시고 환아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행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덕분에 새 생명을 찾고 다시 학교에서 공부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현대도 본부의 지원으로 삼 년이란 긴 치료를 끝내고 완치돼서 현재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엔 학교 갈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본부 홈페이지에 김순옥님이 올린 글 전문(자유게시판 1534번 게시 글, 2010년12월22일)

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후원계좌 안내

- 후원 우리은행 454-005324-13-044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문의 02-727-2293

OBOS NEWS

국제협력

2011 한국NGO봉사단 파견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KOICA의 지원으로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와 협력하여 실시하는 2011년도 한국NGO봉사단원 3명을 파견했습니다. 지난 2월21일 ~ 23일까지 본부에서 실시한 국내교육을 마치고 몽골 메리워드 청소년센터에 한국어 교사로 구자열 씨, 캄보디아 반티프리업 장애인기술학교에 공예담당 교사 유진희 씨와 사회복지사 김소령 씨를 새롭게 파견했습니다.

한편,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몽골지목구의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2010년 12월31일부로 계약이 만료된 자원활동가 김성수 씨와 재계약(2011.1.21 ~ 2012.1.20)을 체결했습니다.

‘2011 띠앗누리 놀이터’ 개최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지난 2월 27일(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2011 띠앗누리 놀이터’를 개최했습니다. 국제청년자원활동가『띠앗누리』의 모든 기수 단원들이 참여하는 ‘2011 띠앗누리 놀이터’는 ‘띠앗누리가 꿈꾸는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현지에서의 활동 모습을 담은 동영상 시청과 사회에 진출한 선배 단원들의 나눔, 2010년 띠앗누리 활동 발표 및 2011년 띠앗누리 활동 논의 후 미사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놀이터에 참여한 50여 명의 단원들은 띠앗누리 경험을 통한 국제청년자원활동가로서의 미래를 고민하였고, 더불어 띠앗누리가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생명운동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상담 매뉴얼’ 발간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가 자살예방 상담자들을 위한 ‘자살예방상담 매뉴얼’을 최근 발간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해 발간한 이번 상담 매뉴얼은 자살예방 최초의 상담실무 지침서로서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면접상담, 종교상담 특성과 상담방법을 소개하고 있어 자살위기사담 실무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 7장으로 구성된 상담 매뉴얼에는 자살예방 상담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한 대처·활용 방법 등을 전문가들이 직접 연구·서술해 상담자들이 실제 상담을 진행하며 겪는 어려움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문의 02-727-22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본부 생명운동부장, 제5회 ‘생명의 신비상’ 장려상 수상



백혈병·난치병어린이 지원사업

※ 단위:만원

성명	병명	병원	진료비
이 * * (여, 만5세)	반인면역소증, 소이증	서울아산병원	700
변 * * (남, 만10세)	간헐사시(양안)	인천성모병원	320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생명운동부 윤경중 부장이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주관한 제5회 '생명의 신비상'에서 활동분야 장려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시상식은 지난 2월15일 서울 로얄호텔 3층에서 있었습니다. 윤경중 부장은 입사 이후 줄곧 생명나눔운동 확산을 위해 헌신해 온 생명운동 활동가로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였으며, "말은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이런 큰 상을 받게 돼 감사할 따름"이라며 생명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본부 임직원과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준 가족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의 전화, 2011 신년미사 및 정기총회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해 온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의 전화'가 지난 1월19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에서 신년미사와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나눔의 전화 상담 봉사자 50여 명이 함께 한 행사에서, 본부 사무국장 민경일 신부는 미사강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미사 중에 '영성심리상담소 황정소 소장',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지현배 신부'에게 '지도상담위원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사랑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신도림동 성당, 100원 모으기 캠페인

지난 1/29(토)~30(일) 이틀간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도림동 성당(주임 최부식 신부)에서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한 '하루 100원 모으기'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해외원조주일'이기도 한 이날, 본부 국제협력부 김대민 차장은 주임 신부님을 대신한 강론에서 본부가 장기재건 사업을 펼치고 있는 아이티의 생생한 현장을

영상으로 보여주며, 생활 속 나눔 실천운동인 한마음한몸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였고, 이틀 동안의 캠페인을 통해 하루 100원 모으기 운동에 210명의 신자 분들이 나눔을 생활실천으로 함께 하고자 동참해 주셨고 49명의 신자 분들이 장기기증에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신도림동 성당 공동체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귀한 마음이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곳에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본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지구촌빈곤청소년을 위한 리폼옷 전달



지난 1월14일,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자신이 가진 것을 지구촌 이웃들과 나누겠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한땀한땀 정성 들어 만든 리폼옷을 안고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빈곤으로 고통 받는 지구촌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직접 리폼한 300여 벌의 옷과 예코백을 전달하고 싶다는 뜻이 담긴 친구들은 신당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홍기범 신부)의 발달장애인 친구들입니다. "캠보디아랑 몽골의 어려운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잘 전달해 주세요" 한 줄의 말이지만 수줍고 또 수줍게 소영이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친구들을 대표해 인사말을 전합니다. 본부는 우리 친구들의 사랑이 담긴 옷과 가방을 지구촌의 또 다른 장애인 친구들, 캄보디아 반티프리업 장애인기술학교와 몽골 친구들에게 잘 전달하였습니다. 한땀한땀 바느질로 세상의 편견을 넘어 사랑을 실천한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친구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태원성당 중·고등부, 일일 찻집 수익금 전달



지난 1월4일, 서울 이태원 성당(주임 전형의 신부) 중·고등부 주일 학교 30여명의 학생들이

이 지난 연말 성탄제 때 본당 신자들을 대상으로 일일 찻집을 열어 모은 수익금 50만 원을 또래의 지구촌 빈곤 청소년들을 위해 본부에 전달해 주셨습니다. 김운상 보좌신부님께서 본부를 방문 하셔서 전해주시신 성금은 지구촌 빈곤 청소년을 위한 학교건립, 학용품과 교복, 장학금을 지원사업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한편, 김신부님은 성당 주일학교 학생들의 지속적인 나눔 생활을 위해 본부의 '사랑의 저금통'을 가져가시며 "이런 나눔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나눔에 동참하길 바라며, 지금보다 더 배려하고 도우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성당 친구들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과 사랑을 생활 속에서 나눔으로 실천하신 서울 이태원 성당 신자 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의 따뜻한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촌들이 함께 모은 사랑의 저금통



새해가 시작되는 1월의 다섯째 날, 모두 형제자매, 사촌

간인 6명의 꼬마 신사숙녀들이 본부를 찾아 왔습니다. "한달 용돈 2만 원 중에서 버스비랑 꼭 필요한 것 빼고 모두 저금한 거예요. 완전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좋아요."라며 홍옥이(초5)가 의젓한 목소리로 저금통을 선물하는 소감을 말하자, 함께 온 유가연(5세), 이유정(초1), 유연서(초1), 유이경(초5), 유지수(초6) 어린이들도 동의하듯 함께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본부를 방문한 유경순 씨(이홍옥, 이유정 모)는 "집안의 여러 어린이들이 함께 모은 동전이라양도 많고 무겁기도 해서 처음에는 계좌이체를 시키려고 했지만 나눔의 현장인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방문해 지구촌빈곤에 대한 이야기도 직접 듣고 궁금증도 얘기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모은 이 동전이,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는지를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체험이 될 것 같아서 직접 찾아오게 됐다."라며 "돈은 얼마안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웃을 돕고 나누는 마음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잘 따라주어서 그렇게 대견할 수가 없네요."라며 흐뭇한 미소로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2011년 새해를 지구촌 빈곤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아름다운 사랑 나눔으로 시작한 어린이 친구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애 첫 기부

아기의 돌잔치·생일·특별한 날 비용을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기부한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아기는 아직 모릅니다. 왜 자신의 생일 사진이 남들과 다른지. 하지만 언젠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다른 시작을 열어준 부모님이 많이 고맙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어진

(2009.11.20생 아버지/ 어머니,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최지안 미카엘라

(2009.9.29생 아버지/ 어머니,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에반스루비리 안젤라

(2010.1.2생 아버지/ 어머니,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이원진 라파엘

(2009.12.21생 아버지/ 어머니, 1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김민후 레오

(2009.10.22생 아버지/ 어머니,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유서준 사도요한

(2009.12.14생 아버지/ 어머니,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정성하 스테파노

(2008.12.25생 아버지/ 어머니, 6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위정우

(2009.12.20생 아버지/ 어머니, 2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심도는 카타리나

(2005.10.22생 아버지/ 어머니,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심재익 임마누엘

(2009.12.22생 아버지/ 어머니,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이민진 토마스아퀴나스

(2009.1.28생 아버지/ 어머니,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황기득 다니엘

(2010.2.13생 아버지/ 어머니, 2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황호신

(2010.8.5생 아버지/ 어머니,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김도영 가브리엘라

(2010.1.6생 아버지/ 어머니,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우지윤 글로리아

(2010.1.8생 아버지/ 어머니,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신지윤 켈마

(2007.7.31생 아버지/ 어머니,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정현민 세례자요한

(2009.12.25생 아버지/ 어머니,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박재형

(2008.1.10생 아버지/ 어머니, 30만원(지구촌 청소년 교육사업 지원)

김주호 루가

(2010.10.15생 아버지/ 어머니, 10만원(지구촌 청소년 교육사업 지원)

양서원

(2010.9.17생 아버지/ 어머니,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안시연

(2010.6.18생 아버지/ 어머니,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임도훈 라파엘

(1995.10.17생 아버지/ 어머니,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양가은

(2007.2.8생 아버지/ 어머니,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김도연

(2008.4.3생 아버지/ 어머니,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장서윤 스텔라

(2007.3.9생 아버지/ 어머니,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장채운 첼리나

(2010.1.20생 아버지/ 어머니, 50만원(아이티 긴급구호 지원)

이준혁 세례자요한

(2010.1.11생 아버지/ 어머니,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박시환

(2010.1.1생 아버지/ 어머니, 2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이건민 토마스아퀴나스

(2009.1.28생 아버지/ 어머니,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우서연 보나

(2010.1.5생 아버지/ 어머니, 100만원(지구촌 청소년 교육사업 지원)

이현준 대건안드레아

(2009.10.23생 아버지/ 어머니,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정세훈 사도요한

(2009.12.9생 아버지/ 어머니, 2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함지원

(2010.2.19생 아버지/ 어머니,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김승원 바오로

(2005.8.3생 아버지/ 어머니, 1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신지윤 켈마

(2007.7.31생 아버지/ 어머니, 1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기은준

(2009.12.30생 아버지/ 어머니,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김윤아 바티다

(2010.1.30생 아버지/ 어머니,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고은호 스테파노

(2010.1.27생 아버지/ 어머니,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장하준 안드레아

(2009.2.21생 아버지/ 어머니, 50만원(아이티 긴급구호 지원)

김경민 마리아

(2010.2.18생 아버지/ 어머니,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정하린

(2010.11.8생 아버지/ 어머니, 30만원(지구촌 청소년 교육사업 지원)

박소미

(2010.2.23생 아버지/ 어머니, 365,000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이예소

(2010.2.17생 아버지/ 어머니, 217,000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황인지 스텔라

(2010.2.23생 아버지/ 어머니,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손유현

(2010.1.23생 아버지/ 어머니, 2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강중원

(2009.4.11생 아버지/ 어머니, 3만원(아이티 긴급구호 지원)

· 생애 첫 기부 참여신청 및 문의 02-727-2267

· 생애 첫 기부 계좌안내 우리은행 454-005324-13-044



소중한 100원, 큰 나눔의 씨앗입니다

하루 100원 모으기 운동

100원이라는 작은 씨앗으로 사랑과 나눔이라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절취선을 따라 오려주세요



‘행복·희망의 씨앗’을 심는 2011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고, 살기 힘들어 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꿈꿀 수 있냐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나눔을 실천하며 다른 이들에게 ‘행복·희망의 씨앗’이 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보내는 사람

□ □ □ - □ □ □



접는선

이 부분은 반으로 접으세요



서울시 중구 명동길 62 (구.명동2가 1) 기톨릭회관 413호
tel 02.774.3488 fax 02.776.7879 www.obos.or.kr

1 0 0 - 8 0 9

한마음 한몸



SPECIAL STORY

‘행복·희망의 씨앗’을 심는 2011년

현장속으로

띠앗누리, 캄보디아에서 사랑을 연다

공감, 나누는 세상

연말연시 한파도 녹인 나눔의 열기

VOL.09

2011

spring

한마음한몸운동본부 One-Body One-Spirit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은 희망입니다

희망은 우리의 영혼에 살짝 걸터앉아 있는 한 마리 새와 같습니다. 행복하고 기쁠 때는 잊고 살지만, 마음이 아플 때, 절망할 때 어느덧 곁에 와 손을 잡습니다.

희망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거나 간절히 원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상처에 새살이 나오듯, 죽은 가지에 새순이 돋아나듯, 희망은 절로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할 때, 가만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기울여보세요. 한 마리 작은 새가 속삭입니다.

“아니, 괜찮을 거야, 이게 끝이 아닐 거야. 넌 해낼 수 있어.” 그칠 줄 모르고 속삭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우리가 삶에서 공짜로 누리는 제일 멋진 축복입니다.

장영희의 영미시산책 <축복> 중에서





이제

이름(세례명)	본당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장기기증 등록증 발송을 위해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핸드폰		
기증장기	☐ 뇌사시 장기기증	☐ 사후 각막기증	☐ 조직기증
윤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표시를 원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장기이식등이식에관한법률" 제13조 3항에 따라 부인은 장기기증의 취지와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장기기증 희망자로 한미음함몸운동본부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름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법정대리인 동의서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 이름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이름(세례명)	본당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후원금액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기타 ()원
출금금액	☐ 매월 5일	☐ 매월 20일	출금통장에 '한마음한몸'이라 표시되며, 매달 익정일에 자동 출금됩니다. 연말 소득증 납입영수증 발급됩니다.	
출금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20 년 월 일 이름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